

뉴질랜드 리슬링의 발견 ‘셜드’... 화이트와인 맛집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7

“대박! 찾아서 지금 당장 마셔야해 (Boom! Find it, Drink now).”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뉴질랜드 와인 ‘셜드 리슬링’에 대해 95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고개가 갸웃해진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와인의 대표주자인 소비뇽 블랑이 아닌 리슬링 품종에다 생산지는 넬슨, 와이너리 셸드도 낯설다.

먼저 넬슨 지역이 어디인지 보자.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으로 이뤄져 있다. 화이트 와인 산지는 보통 남섬이라고 보편된다. 넬슨은 말보로와 함께 남섬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지형적으로 강한 바람은 피하고, 바다와 가까워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진다. 우



셜드의 와인메이커 트루디 셸드.

리나라에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넬슨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 덕분에 말보로와 함께 좋은 화이트 와인 산지로 꼽는 곳이다.

다음은 와이너리 셸드다. 넬슨 지역



(왼쪽부터)셜드 리슬링, 셸드 소비뇽 블랑. /니혼슈코리아

을 대표했던 여성 와인 메이커 트루디 셸드가 판매·마케팅에 능동했던 블레어 길스와 손을 잡고 세운 곳이다.

트루디는 프랑스 알자스나 이탈리아 트라민 등에서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

인에 대한 경험을 쌓고, 넬슨에서는 와이메아 에스테이트에서 수석 와인메이커로 와인 생산을 총괄했다.

화이트와인에 대한 트루디의 자신감은 셸드에 그대로 반영됐다. 넬슨 테루아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비뇽 블랑과 리슬링, 사르도네, 알바리노, 피노그리까지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셜드 리슬링’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맛을 보았다면 독일 리슬링으로 여길 뻔했다. 제임스 서클링 역시 독일에서 유명한 리슬링 산지인 자르(Saar)를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 전형적인 리슬링 특징과 함께 집중력 있는 미네랄 느낌이다. 산미는 살아있지만 날카롭지 않아 화이트와인이 부담스러웠던 이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트루디는 “새벽,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수확했으며, 운반 중에도 포도즙과 껍질이 접촉해 풍미를 더 강하게 했다”며 “독일 리슬링에서 유래한 효모로 발효해 신선한 과일 향과 전형적

인 리슬링 캐릭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셜드 소비뇽 블랑’은 잔에 따라자마자 아로마가 코를 사로잡는다. 와이메아 평원의 서로 다른 포도밭에서 수확된 포도를 섞어 다양한 향과 풍미를 만들어냈다. 기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과 비교하면 좀 더 온화한 기후에서 잘 익은 소비뇽 블랑을 떠올리면 된다. 신선하지만 산미는 날카롭지 않고, 감귤류에 열대과일의 향과 함께 미네랄 느낌이 매력적이다.

‘셜드 사르도네’는 밝은 황금빛을 띠며, 개성 있는 과일 향과 오크 숙성에서 오는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섬세한 산미가 긴 여운을 남긴다.

어느 품종을 골라도 합격점을 받을 화이트 와인 맛집인데 셸드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이다. 현지 미화 15달러 안팎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3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빙속·설상 ‘메달행진’... 종합 2위 굳힌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서 총 12개 메달 획득 이승훈,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 스노보드 김건희, 깜짝 금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7일(14일)째인 한국은 금 13, 은 14, 동 13개로 메달 합계 40개(13일 기준)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국의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은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다량 확보한 가운데 스피드스케이팅도 하얼빈에 태극기를 꽂았다. 목표했던 금메달 2개를 넘어 3개를 땀고, 은메달 5개와 동메달 4개를 더해 총 12개를 획득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m를 제패한 이나현(한국체대)은 여자 500m 은메달, 여자 1000m 동메달을 더해 이번 대회 금, 은, 동을 모두 수확했다.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은 여자 500m 금메달, 100m 은메달을 목에 걸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김민선과 이나현은 김민지(화성시청)와 함께 여자 팀 스프린트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팀 추월에 나선 ‘베테랑’ 이승훈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9번째 동계아시안게임 메달을 거머쥐며 한국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보유자로 우뚝 섰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세대교체를 알리는 어린 신성 선수들의

|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현황 | | | | |
|-------------------------|--------|----|----|----|
|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 1 | 중국 | 32 | 26 | 24 |
| 2 | 대한민국 | 13 | 14 | 13 |
| 3 | 일본 | 9 | 9 | 13 |
| 4 | 카자흐스탄 | 3 | 8 | 6 |
| 5 | 우즈베키스탄 | 1 | 0 | 0 |
| 6 | 북한 | 0 | 1 | 0 |
| 7 | 대만 | 0 | 0 | 1 |
| 7 | 태국 | 0 | 0 | 1 |

*13일 기준 자료/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활약이 컸다. 제2의 이상화’로 떠오른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신성 이나현(한국체대)은 여자 100m에서 선배 김민선(의정부시청)을 0.004초 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계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신예라는 점에서 차세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김채연은 첫 동계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을 받았다. 김채연은 12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82점, 예술점수 32.06점을 합해 71.88점을 받았다. 이날 김채연의 점수는 2023년 2월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인 71.39점

보다 0.49점 높았다. 한국 여자 싱글의 간판으로 떠오른 김채연은 첫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이다.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13일 김건희(시흥매화고)는 악천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행운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김건희는 중국 하얼빈 인근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 78점으로 1위를 확정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재운(수리고)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노렸지만 예선 43.75점을 기록, 12명의 선수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6개 종목에서 금 2개, 동 3개를 차지했다.

한국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에 나선 고은정(전북체육회),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전남체육회), 아베마리아, 정주미(이상 포천시청)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계주 은메달을 획득했다. 13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중국 하얼빈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계주 4×6km에서 1시간 29분 27초 3에 들어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압바꾸모바)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바이애슬론 메달을 땀다.

금메달은 중국(1시간 29분 6초 3), 동메달은 카자흐스탄(1시간 30분 1초 9)이 차지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

독창적인 독해로 읽는 12개 회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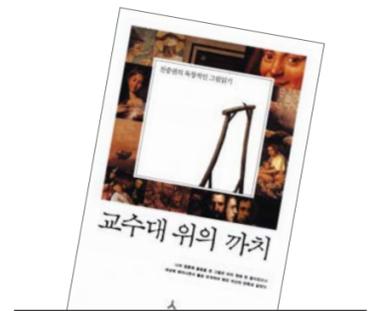
웹서핑을 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모나미 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변화가를 찍은 사진 속 남성 중 약 97% 이상이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다. 글쓴이는 그들의 클론(복제) 패션을 ‘모나미 펜’에 빗대 회화화한 것이었다.

무심코 옷장에 걸린 옷을 입고 놀러 나갔다가 사진이 찍혀 ‘모나미 펜’이라고 놀림당하지 않으려면 수용 미학에서 강조하는 ‘창조적 독해력’을 갖춰야 한다.

‘교수대 위의 까치’를 쓴 미학자 진중권은 “작품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보며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품은 제작된 순간에 완성되는 죽은 ‘물건’이 아닌 끝없는 물음과 답변의 놀이를 통해 영원히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생물’이다”고 말한다.

미학자 진중권이 집필한 ‘교수대 위의 까치’는 프라 안젤리코의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알브레히트 뒤러의 ‘책을 삼키는 요한’,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신중함의 알레고리’ 등 12개 회화 작품을 작가가 어떻게 독해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여기에 모인 글들은 독자들을 대신해 그림을 읽어주기 위한 게 아니다”며 “뱀레적 성격의 이 책은 독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독해의 요청, 다시 말해 ‘그림을 이처럼 읽어 보라’거나 ‘이와는 다른 식으로 읽어보



교수대 위의 까치
진중권 지음/휴머니스트

라’는 채근에 가깝다”고 밝힌다. 요하네스 고프의 ‘자화상’을 다룬 부분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고프는 관객에게 등을 돌려 얼굴을 감추고는 화폭 위에 거울에 비친 ‘영상’과 캔버스에 그려진 ‘모상’만 남긴다.

진중권은 “화가가 등을 돌려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춤으로써 반영과 재현의 제재가아에 사라지면서 남은 건 ‘복제’와 ‘복제의 복제’라며 “이는 ‘원본 없는 복제’라는 ‘시물라르크’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거울 속의 내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외면할 때, 거울 속의 나는 독립적인 인격이 된다. 모델과 상관없이 제의지를 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재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뒤통수를 보이는 저 머리인가, 거울 속 얼굴인가, 그것도 아니면 캔버스 위의 얼굴인가. 책의 물음에 당신은 뭐라 답하겠는가. 28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美 국방, 3월 하순 방일 조율... 미일 국방 회담” /사진 뉴시스
▲사실상 푸틴 요구 들어준 트럼프?...급물살 타는 우크라 종전 시계

▲태국·미얀마 접경 범죄 조직에 억류된 261명 구조
▲모디 인 총리 방미,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방어에 성공할까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 해체, 강풍으로 14일 이후로 연기
▲대만 타이중 백화점서 폭발사고...1명 사망·10명 부상